



8일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열린 2006 프로야구 KIA와 준플레이오프 1차전 9회말 1사만루에서 클리어의 우익수 최성필이 투수 김태균 주위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KIA의 투수 한기주는 글러브로 얼굴을 가린 채 아쉬워하고 있다.

“1차전 패배 내가 실욕”



그레이 오늘 선발 출장

올해 1.2.3 선발 마운드 중 강철민과 김진우가 부상으로 빠진 마운드를 홀로 지켜내며 KIA의 4강행을 이끌어 낸 일등공신이었던 김진우가...

“2차전은 나에게 맡겨라” ‘특급 에이스’ 그레이싱어(31·KIA·사진)가 9일 광주구장서 열리는 한화와의 2006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 선발 출격한다.

올 시즌 팀내 최다승인 14승(12패·방어율 3.02)을 따낸 그레이는 지난달 22일 두산전 이후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 2차례나 선발 순서를 넘기며 사실상 시즌을 접는 듯 했다.

다행히 그레이는 이후 불펜 피칭 등을 통해 컨디션을 조절했고, 상태가 호전되면서 준플레이오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그레이는 “그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해 제 컨디션은 최상”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KIA 뒷심 부족...벼랑 끝 위기



한기주 결정적 9회말 보크 한화에 2-3 역전패 장성호·이재주 연속홈런 빛바래...오늘 2차전

■ 준플레이오프 1차전

KIA가 젊은 영건들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가을잔치'의 첫 관 기선제압에 나섰으나 '경험부족'을 드러내며 허무하게 무너졌다.

KIA는 8일 대전서 열린 2006 프로야구 한화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회초 장성호-이재주의 탕대부 홈런에도 불구하고 실책이 가까운 플레이로 인해 2-3으로 역전패했다.

이로써 KIA는 지난 2002년 잠실 LG전 이후 포스트시즌 8연패의 늪에 빠졌다.

3전2선승제인 준플레이오프에서 1패를 당한 KIA는 9일 광주 구장으로 한화를 불러들여 2차전을 치른다. KIA가 승리하면 하루를 쉬고 11일 대전서 마지막 3차전을 벌인다. 이날 KIA의 첫 출발은 상쾌했다. KIA는 1회 2사 후 장성호가 볼카운트 2-3서 상대 선발 문동환의 슬라이더를 통타, 비거리 110m짜리 우월 솔로포를 뽑아내며 초반 기선을 잡았다.

하지만 KIA의 승운은 1회에서 멈췄다. KIA는 3회 2사 만루 찬스에서 이종범의 내야땅볼로 추가점 기회를 날리더니 4회에도 2사 2, 3루서 이용규의 잘 맞은 타구가 상대 1루수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며 점수를 보태지 못했다. 7회에도 2사 만루서 손지환이 초구를 건드려 힘없는 내야 땅볼로 물러나며 득점 사냥에 실패했다. 매회 득점 기회를 놓친 KIA는 곧바로 물러온 위기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KIA 선발 김진우는 4회 1사 이후 한화 고동진에게 3루타를 허용한 뒤 데이비스에게 희생 플라이를 내줘 1실점했다. 이어 5회에는 선두타자 이범호에게 중월 솔로포를 얻어맞고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팽팽하던 양팀의 승부는 '영건'의 작은 경험부족이 드러난 9회말에 갈렸다. 8회에 마운드를 물려받은 '피터팬' 한기주는 9회말 선두타자 김태균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한 뒤 1루에 견제구를 던지다 어이없는 보크를 범해 무사 2루를 만들어 줬 위기를 자초했다. KIA는 공여지책으로 이범호와 한상훈을 고의사구로 내보내 만루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한기주는 1사 만루서 대타로 나온 한화 용병 클리어에게 초구 스트라이크에 급급하다 끝내기 희생 플라이를 얻어 맞고 고개를 떨쳤다.



1루수 부문 이승엽 2위

■ 美·日 올스타전 출전 日 올스타 투표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1월2일부터 도쿄돔에서 벌어지는 미·일 올스타전에 출전할 일본 올스타 투표 1루수 부문에서 전체 2위에 뽑혔다. 이승엽은 일본야구기구(NPB)가 최근 발표한 올스타 투표 최종 결과에서 2만 9천630표를 획득, 3만 1천995표를 얻은 오가사와라 미치히로(니혼햄)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일본 올스타 1루수 부문에서는 이승엽, 앤디 시츠(한신), 타이론 우즈(주니치) 등 샌프란시스코 외국인 선수 3명과 퍼시픽리그의 오가사와라, 후쿠우라 가즈야(지바 롯데), 마쓰나카 노부히코(소프트뱅크), 알렉스 카브레라(세이부), 오가사와라 미치히로(니혼햄), 기요하라 가즈히로(오릭스) 등 총 9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최경주 부진 37위 PGA 크라이슬러클래식 3R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크라이슬러클래식 2연패에 도전하는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공동 37위까지 쳐졌다. 최경주는 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의 포리스트오크스골프장(파72.7천31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1타도 줄이지 못한 채 이븐파를 쳐 합계 4언더파 212타로 선두와 6타차로 벌어졌다. 3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필드의 귀족' 데이비스 러브 3세와 통산 2승을 바라보는 크리스 코치(이상 미국)가 함께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선두. 최경주는 이날 출발 출발부터 3번홀까지 연속 3개의 버디를 슈아내면서 패조의 스타트를 했으나 6번홀에서 아쉬운 더블보기를 범했고 이후 2개의 보기를 추가한 뒤 15번홀에서 버디로 1타를 만회했다. 통산 18승을 보유한 '필드의 귀족' 러브 3세는 이날 4타를 줄이면서 2라운드 공동 10위에서 단숨에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2003년 5승을 거두는 등 화려한 시절을 보낸 뒤 지난 2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 액션투어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포함해 그동안 운수승만 5차례 했던 러브 3세는 3년만에 승수를 추가할 기회를 잡았다.

김초롱·조령아 공동 4위 8언더파...선두 오초아와 8타차 LPGA 코로나모렐리아 챔피언십 3R. 김초롱(22)과 조령아(22)가 LPGA 투어 코로나모렐리아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공동 4위를 달렸다. 김초롱은 8일(한국시간) 멕시코 모렐리아의 마리아 레시엔티알골프장(파73.6천763야드)에서 열린 대회 셋째 날 이글 2개와 버디 5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8언더파 65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이날 데일리베스트샷을 뽑아낸 김초롱은 둘째 날 공동 32위에서 순위를 급상승시켰다. 조령아도 4타를 줄이면서 공동 4위에 합류, 톱10 입상을 바라봤다. 그러나 홈런들의 성원을 등에 업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이날도 5타나 줄이면서 합계 16언더파 203타로 단독 선두에 나서 마지막 날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초아는 2위인 홀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 206타)와도 간격을 3타차로 벌려 시즌 4승을 고국 팬들에게 선사할 전망이다. 한국 선수중 양영아(28)도 3타를 줄여

“양대리그 도입 등 논의” 하일성 KBO 사무총장 “연말 리그개선 공청회” 하일성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8일 올 해 연말 범야구인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열어 프로야구 리그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 개최 시기는 2006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12.1~15)이 끝난 후인 연말을 계획하고 있으며 참석 대상은 구단, KBO 관계자와 기자를 포함한 야구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범야구인이다.